

# 이번엔 ‘설강화’...가구업체 “협찬 취소”

(JTBC 6월 방영 예정)

“안기부 미화” 촬영중지청원 붐물 ‘조선구마사’ PD·작가·배우 사과 제작사·방송사 시총 700억원 증발 방송사, 역사 관련 모니터링 강화



SBS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사진은 극중 조선 태종의 아들 충녕대군이 서양의 사제에게 중국식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으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됐다. 사진출처 | SBS 방송화면 캡처

역사 왜곡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SBS '조선구마사'가 2회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로 방송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JTBC '설강화:스노우드롭'이 '역사 왜곡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조선구마사' 발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일부 드라마의 제작진은 내용을 재검토하며 혹은 제기될 수도 있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조선구마사'가 26일 폐지된 이후 감우성·장동윤·박성훈·정혜성 등 출연자들이 잇따라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역사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내놨다. 연출자 신경수 P

D와 대본을 집필한 박계옥 작가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논란과 비판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박 작가의 전작이자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 모았던 tvN '철인왕후'의 다시보기 서비스까지 중단됐다. 또 '조선구마사'의 제작사인 YG스튜디오플레이스의 모기업 YG엔터테인먼트와 방송사 SBS의 주가가 28일 각각 5%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700억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드라마도 방영 전부터 논란에 휘말렸다. JTBC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소재 삼아 6월 선보일 드라마 '설강화:스노우드롭'의 이야기가 역사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시청자는 남자 주인공이 남파간첩이라는 설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

들이 '원칙주의자이자 대쪽같은 인물'로 소개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에 JTBC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드라마 제작 중단 요청 글이 28일 오후 현재까지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가구회사는 “드라마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협찬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드라마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방송사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역사 속 실존인물이나 특정 시대상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진은 최근 소품, 음악, 의상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는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설정을 따온 정도에 그친 드라마도 전문가 자문 회수를 늘리는 등 제작진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혹시나 불똥이 튀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로제, NBC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



로제

최근 첫 솔로앨범을 내놓은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인기 방송프로그램인 NBC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로제는 29일(한국시간) 방송되는 '켈리 클락슨 쇼'을 통해 이번 솔로앨범 'R'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 솔로가수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는 로제가 처음이다. '켈리 클락슨 쇼'는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연기자인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아리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존 레전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출연해왔다. 로제는 'R'의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 70위로 진입해 케이팝 여성 솔로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 '달이 뜨는 강' 1회 나인우 버전 나왔다



나인우

연기자 지수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 논란으로 하차한 뒤 나인우를 대신 투입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재개된다. KBS는 나인우가 재촬영한 '달이 뜨는 강'의 1회분을 29일 다시보기 서비스로 공개한다. 이어 나인우가 출연한 나머지 방송분 역시 조만간 서비스할 예정이다. 앞서 KBS는 지수가 출연했던 1~6회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나인우는 2월15일 첫 방송한 드라마의 7회분부터 출연 중이다.

### 밴드 이날치 '광자매 납신다' 음원 공개



밴드 이날치

판소리와 팝을 접목한 노래 '범 내려온다'로 인기 돌풍을 일으킨 밴드 이날치가 드라마 OST도 선보였다. 이날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의 삽입곡인 '광자매 납신다'를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신연맞이'와 '심청가'의 심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빌어 온 노래이다. '범 내려온다'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서 이날치와 함께한 엠비규어스댄스 컴퍼니는 '오케이 광자매' 연기자들과 함께 '광자매 납신다'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도 출연했다.

### 포브스 "케이팝 틀 벗어난 온앤오프"



그룹 온앤오프

그룹 온앤오프(ONF)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주목을 받았다. 포브스는 27일(한국시간)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앤오프가 기존 케이팝의 틀에서 벗어나 변형된 모습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데뷔해 두각을 나타내온 온앤오프는 2월24일 첫 정규앨범을 내고 타이틀곡 '뷰티풀 뷰티풀'(Beautiful Beautiful)로 국내 음원차트 정상을 올렸다. 이들은 포브스 인터뷰에서 관련 소감부터 그동안 작업 과정 등을 공개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 위원장 선출



채윤희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회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8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윤희 신임 영상물등급위원회장은 올댓시네마 대표로 일하며 한국 영화계 홍보마케팅의 전문적 역량을 키운 대표적 인사이다. 채 위원장은 2024년 3월25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개그맨들

김영희, 19금 '기생충' 4월 개봉 안상태·박성광 단편영화제 수상도 '개그밖 무대에서 다양한 메시지 전달'

개그우먼 김영희가 직접 연출한 영화 '기생충'을 4월 공개한다. 앞서 박성광과 안상태 등도 영화제 수상 등 '감독'의 타이틀을 얻었다. 개그 무대에서 얻지 못하는 또 다른 매력을 맛보고 있다.

김영희는 4월 IPTV를 통해 성인영화 '기생충'을 선보인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패러디했다. 김영희는 "기존에 익숙한 작품을 성인영화로 패러디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연출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상태는 지난해 '키버' 등 5편의 단편 영화를 모은 '안상태 첫번째 단편선'을 내놨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뒤 2011년 단편영화 '육'을 연출하며 감독으로 나선 박성광도 2017년 '슬프지 않아서 슬픈'을 연출작 목록에 추가했다. 지난해 정형돈과 함께 '끈'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에 앞서 이경규, 심형래 등 선배들도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경규는 1992년 '복수혈전'으로 나섰고, 심형래는 2007년 '디워'로 800만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작품적 완성도면에서는 커다란



김영희

안상태

박성광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젊은 개그맨들의 영화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키운다. 실제로 박성광은 '슬프지 않아서 슬픈'으로 2018년 한중국제영화제 단편감독 데뷔상과 미추홀필름페스티벌 연출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안상태도 '안상태 첫번째 단편선' 가운데 '적구'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작 지원 공모전 본상을 받았다.

개그맨들의 잇단 도전과 시도는 개그 무대 기획력에서 출발한다. 아이디어에서부

터 대사를 만들고 연기를 펼치며 쌓은 재능을 다양한 무대에서 발산하려는 욕구이다. 웃음을 자아내야 하는 개그 무대와는 달리 좀 더 다양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의지도 작용한다. 안상태는 "오래 전부터 영화 연출의 꿈을 위해 준비해왔다"면서 "개그와 영화 등 연기 활동을 통해 연출과 연기에 대한 생각은 물론 촬영과 편집 등 영화 제작 관련 작업에 대해서도 공부해왔다"고 말했다.

개그맨을 바라보는 대중적 '편견'의 장벽도 없지 않다. '끈' 시나리오를 쓴 정형돈은 "편견을 갖고 봐도 좋고 혹평해도 좋은 작품을 봐 달라"고 당부한 까닭이다. 안상태도 "일회성이나 이벤트 차원이 아니다"며 진지한 연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임을 내비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BTS, 역시 월드클래스!



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KBS 2TV '스페셜 토크쇼: 렛츠 BTS(Let's BTS)'. 사진제공 | KBS

KBS2, 오늘 '렛츠 BTS' 특집예능 BTS, 그룹이름의 단독토크쇼 처음 유튜브 예고편 조회수 벌써 60만회

그룹 방탄소년단이 잇따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다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뒤 29일 밤 10시40분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스페셜 토크쇼: 렛츠 BTS(Let's BTS)'에도 나선다.

방탄소년단은 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3380여개의 시청자 질문을 토대로 데뷔 이후 8년의 궤적을 돌아본다. 최근 그래미 어워드 후보로 지명된 소감과 그동안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각종 노래와 무대의 비화도 전한다.

지상파 방송사인 KBS가 특집 그룹을 전면에 내세운 특집 예능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탄소년단도 그룹의 이름으로 단독 토크쇼를 처음 선보인다. 이들이 그만큼 세계적 파급력을 지녔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각종 예고편은 최대 60만뷰를 얻는 등 빠르게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내세우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도 'BTS 카테고리'를 신설해 이용자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KBS 1TV '뉴스9' 및 2TV '불후의 명곡',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K' 등 이들이 출연하거나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은 모았다.

앞서 24일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평소 4%대에 머물던 시청률이 6.7%(닐슨코리아)까지 올랐다.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BTS 효과'를 또 한번 입증한 셈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음원강자' 아이유가 돌아왔다

4년 만의 정규 5집 '라일락' 수록곡 전곡, 차트 '줄세우기' 나일, 이찬혁, 딘 등과 협업

'음원 강자' 아이유가 돌아왔다.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유가 최근 4년 만에 발표한 정규 5집 '라일락'(LILAC)으로 또 한번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28일 현재 모든 수록곡으로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이른바 '줄 세우기' 중이다. 앞서 1월27일 맛보기로 공개한 후 장기간 1위를 차지했던 '헬러브러티'(3위)와 최근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2위)을 제외하고 아이유의 신곡이 1위부터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또 11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국내외 인기를 실감케 한다.

'라일락'은 20대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아이유가 지나는 시간을 돌이키는 감상을 10곡에 담담히 담아낸 앨범이다. 라일락의 꽃말도 '젊은 날의 추억'이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 '라일락'은 화사한 분위기로 과거 히트곡 '좋은 날'의 가사 일부를 반복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다. 아이유는 앨범 발표 기념 라이브쇼에서 "확실히 여러분께 보여드린 저의 20대를 보내고, 새로 쓸 30대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미리 젊은 날의 추억에 인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4집 '팔레트' 이후 4년 만에 정규앨범을 선보인 아이유. 사진제공 | EDAM엔터테인먼트

아이유는 과감한 변화도 시도했다. 그동안 고집해왔던 자작곡을 줄였다. 동료 나일, 악류의 이찬혁, 딘 등과 협업하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담았다. 전체 프로듀싱을 맡은 그는 "과감하게 자작곡을 들어내며 협업으로 많은 자극을 받았다. 안해봤던 장르를 시도하는 쾌감도 느꼈다"고 했다.

이에 힘입어 아이유는 음악방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주연 영화 '아무도 없는 곳'이 개봉하면서 관객과도 만나고, 4월9일 방송하는 JTBC '싱어게인'을 비롯해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